생일 은수(彭)

루카 창세기 11장 26절, 32절 및 창세기 12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을

공통적으로 이해하는데서 발생하는 남매에 대한 질문

이성훈 주수

들어가면서

근래에 창세기를 세계에에서 수요에에에서 설교하면서, 최근에 아브라함과 사두의 "같은 날"에 대한 주문을 강조한 적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에 집중하면서, 본인이 언급한 주문 안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의 비교이다.

그런데, 성교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성소에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나이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던 한 집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접하면서 여러 질문으로 또한 주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기회를 빌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님에 감사드리고 감사함을 전하며, 난제를 함께 맞을 내놓는다.

남매는 무엇인가?

먼저, 남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각 말씀을 확인해 보자.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해란을 낳은 것은 70세부터였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서는 "데라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해란에서 죽었더라"며, 그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면 자연히, 아브라함이 그 해란에서 데라의 마지막으로 시중하게 되는데, 그 때의 나이를 75세로 밝히고 있다. 이에 아브람이 아브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해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이러한 증거에 입각할 놓고 볼 때, 칠십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면, 데라는 145세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 때를 놓고,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갑자 계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갈하셔서, 그가 아직 데라가 세상을 떠날 다음에 가나안으로 내리셨다고 사도행전 7장 4절"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해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이제 살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에 언급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날 다음에 해란에서 길을 나선 것이 된다. 그 때, 데라의